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트랜스지방, 제한, 라벨링, 건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트랜스지방, 제한, 라벨링, 건강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6. 18.
미국 FDA,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법 발효

2015. 12. 20.
트랜스지방 사용으로
소비자 건강 '적신호'

2016. 5. 26.
다국적기업, 저품질
트랜스지방 사용

2016. 9. 29.
트랜스지방 사용제한
결의안 제안

핵심이슈
도출

“EU, 트랜스지방 사용 제한한다”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EU, 트랜스지방 사용 제한한다

2016년 9월 29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의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분과에서는 인공 트랜스지방의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결의안 2016/2637(RSP)을 제안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트랜스지방의 함량과 라벨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트랜스지방산(Trans Fat Acid)은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불포화지방산으로, 팝콘과 비스킷 등 간식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트랜스지방은 가공식품의 식감을 좋게 하고 보존 기간도 늘릴 수 있어 식품업계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트랜스지방이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 정부에서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에서는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이 높지만, 이를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적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동 결의안에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

기존에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트랜스지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통일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덴마크에서는 2003년부터 전체 지방함량 중 트랜스지방은 2%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가 동일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독일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필수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국 내 모든 인구의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를 위해 의무적인 제한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에 대한 결의안 2016/2637(RSP)은 10월 중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2015년 6월에는 미국이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면서 유럽연합 국가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진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도 본격적으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환경위원회(ENVI) 위원들은 덴마크에서 트랜스지방 규제로 전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음을 사례로 소개하였으며, 아이슬란드도 동일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후 유럽의회의 표결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의 트랜스지방 사용 제한 결의안 원문(영어) 확인

(<http://www.tgdf.org.tr/wp-content/uploads/2016/07/ENVI-Draft-motion-for-resolution-TFAs.pdf>)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